

주임신부: 김대하 (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 (사도 요한)  
TEL: (905) 545-3004  
FAX: (905) 545-7895

# 대 림 시 기

오늘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오 11, 3)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일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신심, 십자가의 길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훈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3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3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이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 ▶ 12/14(일) 대림 제 3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 ▶ 12/17(수) 12 월 17 일 미사 (본당 11:00)
- ▶ 온주 한인 성당 판공성사로 인하여 오후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 12/21(일) 대림 제 4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 ◎온타리오 한인 성당 합동 판공 성사

- 기간: 12/15(월) ~ 12/19(금), 12/18(목) 성 유대월 성당 18:00
- 판공성사표: 성사표에 수정 및 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맞이 대청소

- 오늘 친교식사 후 구역별 담당구역을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구역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6 헌금 봉투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 세금 신고하실 때 사용하시는 영문 이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태성 베드로

### ◎성탄 미사 전례단, 해설단 전례 회의

해설단 12/9(화), 박혜영 수산나, 김의수 안드레아

해설단과 복사단 12/21(일)

최다혜 플로라, 이준환 파비아노, 최다인 안나, 최다희 보나  
이준규 안드레아, 김규리 라파엘라, 최아현 베로니카  
이지민 이사벨라, 이소민 그레이스

### ◎성탄 구유 예물 경배 봉헌

12/24 성탄 밤 미사(21:00), 12/25 성탄 낮 미사(16:00)

봉헌처: 예수의 까리따쓰 수녀회 남수단 선교지에 봉헌됩니다.

## ◎성탄 공연

- 장르: 신나고 귀여운 크리스마스 캐롤
  - 대상: 각 구역 및 본당 제 단체
- 각 구역장들은 공연 진행을 위해서 콘티와 필요한 요구사항을 총무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소식

### ◎레지오

꾸리아 회합 12/14 (일) 13:00 하상실  
모든 Pr. 간부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파티 12/21(일)

## 구역 소식

### ◎11 월 구역 미사 (모임)

1 구역: 12/20(목) 11:00 김영미 스텔라

## 공소 소식

### ◎12 월 축일자 12/13 루시아 (최로아)

##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48 명)			
주일현금	\$1380	교무금	\$1775
감사현금	\$0	성전건립	\$0

### ◎감사합니다.

- 도네이션 익명 \$1000

### 친교식사 ※테이크 아웃용 종이백/비닐은 각자 준비

12/14: 7 구역(따뜻한 오뎅국 \$5/\$3)

12/21: 1 구역 12/28: -

### ◎12 월 축일자 (21 명)

12/3 루치오(김태훈), 스테파노(최우중)

12/9 발레리아 (김나경) 12/10 윤리아(우경숙, 김새롬)

12/13 루시아(이혜영, 조혜자, 이민아, 조인순)

12/24 일미나(김진희)

12/26 스테파노(양진훈, 민종환, 최두원)

12/26 스테파니(정혜자), 크리스티나(이순옥)

12/27 사도요한(하재석, 권병학, 이용원, 이준서, 김대하)

12/31 바울리나(민옥희)

## 2025 희년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 ◎판공성사에 대해서 (교회법 989 조)

한국 천주교회 신자라면 누구나 매년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에 교회의 규정에 따라 고해 성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판공 성사표를 받아  
고해 성사를 보게 되고, 교회는 성사를 받은 사실을  
교직에 1년에 2회 기재함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점검하고 돌보게 됩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판공 성사를 연속 3년 이상 받지 않은  
신자를 '쉬는 교우'로 규정하여 분류하게 되므로  
성사 후 판공 성사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판공 성사를 타 본당에서 받았으면 고해 신부의  
확인을 받아 교직이 있는 본당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 군대 등 본당에서 판공을 받을 수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판공 성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본당  
사무실에 판공 성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2/14	김의수 안드레아	이지민 이사벨라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이지훈 다니엘 2 독서: 임연신 비아	권희진 요안나 하유선 라파엘라
12/21	이은영 힐데가르트	이준규 안드레아 유세진 라파엘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이지훈 다니엘 임연신 비아
12/28	박규혜 카타리나	이소민 그레이스 고동연 미카엘	1 독서: 이준환 파비아노 2 독서: 김규리 라파엘라	유세진 라파엘 이준규 안드레아

## 자비롭고 선한 사람

손지호 베드로 신부  
해양 사목 담당

대림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만나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나,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언자를 보기 위함입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를 넘어서서 예언자들이 전하는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온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 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바람과 욕심을 채워줄 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 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만찬가지로 당연히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 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뿐입니다.

대림 제 3 주일은 자선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선하면 제일 먼저 적당히 기부하는 것을 자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자선은 무언가를 내어 놓은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을 맑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신 말씀처럼 되어 가기입니다. 우리가 본성으로 자비롭고 선한 사람이 되고, 단순히 적당하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있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이 넘쳐 흘러나오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참된 자선은 분노하지 않고, 짜증 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자신을 비워내고 참아내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톤에 담긴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바오로는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자선의 행위가 자칫 자기 중심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자비롭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참된 자선은 나눔을 통해 내가 더 나아지거나 높아지는 기분을 느끼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물질은 나누는 자선을 넘어서 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하느님의 사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길 빕니다.



##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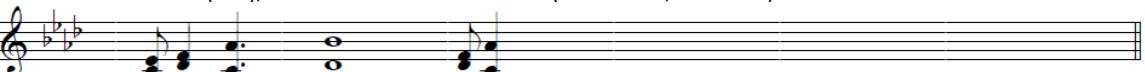


## 대림 제 3 주일 (자선 주일)

(2025. 12. 14.)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35,1-6 ↗.10

화답송 시편 146(145),6 ↗-7.8-9 ↗.9 ↗-10 ↗-11(◎ 이사 35,4 ↗ 참조)



후렴. 주님, 저희를 구원하려 오소서.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5,7-10

복음 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11

배움과 체험의 해

2025 사목지침